현대정치의이해\_201810912\_김연출

사회가 겪고 있는 환경적 변화의 특성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 관료제의 장단점을 기준으로 변화의 방향성을 논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의 환경적 변화의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현대 사회는 선택의 폭이 넓은 사회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에 비해서 수많은 매체들을 접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매체에 맞춰서도 시장 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개발된 이후로 어플이 등장했고, 기존의 사회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수행했던 일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배달시켜서 먹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에서는 전단지나 아니면 직접 나가서 찾아보는 방식으로 정했다고 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어플에서 여러 가게를 둘러보며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어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서 수많은 온라인 매체(어플, 사이트)가 늘어나며 선택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선택의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두번째, 비대면(온라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학 분야의 발전으로 온라인으로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에 이어 20년 들어서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생성됨에 따라 우리는 거의 모든 일들을 온라인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오프라인을 매체로 하는 경쟁업체들은 하락세를 띄고, 온라인을 매체로 하는 경쟁업체들은 상향세를 띄는 모양새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는 기존의 사회보다 온라인이 중시되며 실제로 많은 일을 수행한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료제의 미래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로는 “신공공관리론”입니다. 현대사회는 경쟁력 강화가 요구됩니다.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가진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관료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규칙에 의한 업무수행”으로는 모든 상황에 맞는 규칙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따라 많은 상황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업, 세밀화로는 어떠한 빠른 변화에 있어서 좁은 수행 영역을 가지고 있어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직된 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경쟁을 갖춘 관료제로 변화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이란 정부와 시장의 경직된 이분법을 극복하는 정부조직의 운영과 공공행정의 방식을 말합니다. 막연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자 중심 행정서비스가 아닌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변화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공급자를 다양화하고, 내부적으로도 성과주의와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료집단또한 공공과 시장의 경계가 모호한 현대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현대 관료제가 갖는 문제점, 통틀어 경직된 현대의 관료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가지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시장에 맡기지 않으면서도 또 정부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효율적인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조직의 관점이 아니라 활동과 기능의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공급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서비스공급을 위한 거버넌스의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자는 아니지만 그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거버넌스의 큰 뜰을 짜는 것을 정부에 의한 공적 제공이라고 합니다. 민간위탁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되는데, 이는 공공관료제의 경직성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의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주차장 공유 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는 거버넌스의 체계를 만들어 구축해주고, 민간은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주차장 공유 어플을 만들어 유자격 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어플은 민영주차장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면서, 주차장 소유자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줌으로써 주차난을 해결했습니다. 이렇듯 정부와 시장 사이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또는 시장만의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며, 경직된 관료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